

인도네시아, 휘발유 가격 인상계획 발표

1. 휘발유 가격 인상 배경

□ 휘발유 가격 인상의 필요성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연료 중 민간, 정부 및 군 소유 차량에 이용되는 휘발유(petroleum)의 시장가격은 9,000루피아/리터¹⁾이나, 정부 보조금이 적용되어 이의 절반인 4,500루피아/리터에 판매되고 있음.
 - 경유, 등유 등에도 보조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료 중 휘발유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큼.
- 휘발유 보조금의 부담은 모든 국민이 지는 반면, 보조금을 통한 가격 인하의 혜택이 빈곤계층이 아닌 자가용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보조금 반대론자들은 보조금 축소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교육 및 보건사업 등 보편적 복지제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휘발유 보조금 제도로 인해 휘발유의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휘발유 수요 및 공급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사용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11년 중 보조금에 따른 정부지출 규모가 전체 정부지출의 2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휘발유 보조금 지급액의 경우 정부지출의 11% 정도인 약 14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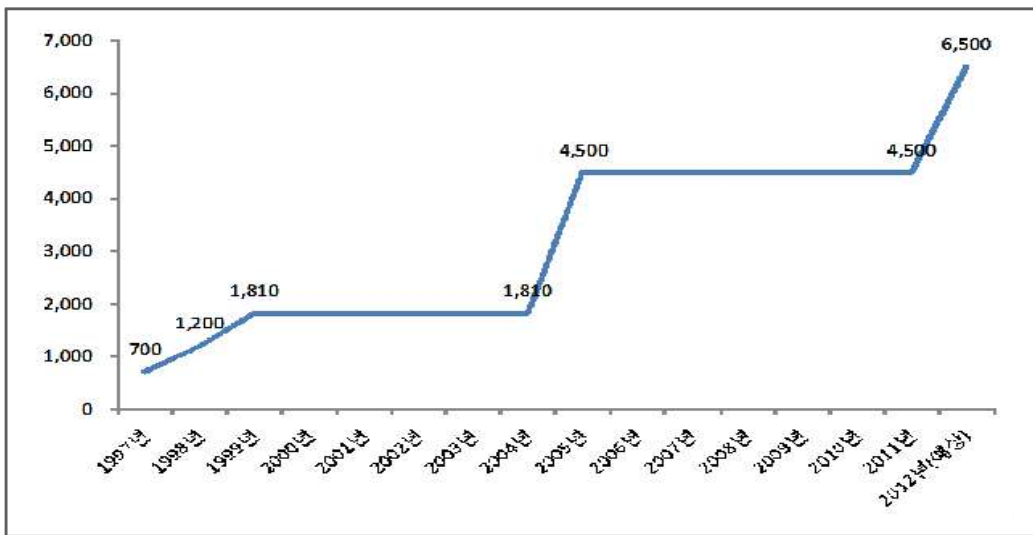
1) 9,000루피아는 약 1달러 정도에 해당됨.



□ 정부 보조금 축소 고려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출을 2011년 대비 12%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휘발유의 국내공급을 4,000만 킬로리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을 추진함.
 - 이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자바와 발리 지역에 보조금 지급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고 옥탄휘발유(Pertamax)²⁾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옥탄휘발유만으로는 자가용 보유자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동 정책은 잠정 연기됨.
- 휘발유 소비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당국은 리터당 보조금액을 줄여 보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함.
 - 2012년 1월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보조금이 적용된 휘발유의 가격을 리터당 4,500루피아에서 약 11~44%(500~2,000루피아) 인상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그림> 인도네시아 정부 보조금 적용 휘발유 가격 추이



2) 옥탄휘발유에는 정부 보조금이 없어 일반 휘발유의 2배 가격인 리터당 9,000루피아에 판매되고 있으며, 보유 주유소가 일반 휘발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공급망 확충이 필요함.



2. 휘발유 가격 인상의 영향

□ 소요사태 등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가능성

- 인도네시아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 축소와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하여 동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음.
 -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의 요구를 수용하여 휘발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려다 대규모 반대시위가 발생하여 32년 정권에 막을 내린 전례가 있음.
 - 한편, 2005년 10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자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내려 휘발유 가격을 기존의 리터당 2,400루피아에서 87.5% 인상한 4,500루피아로 인상하였으며, 동시에 국민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 회유정책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함.

□ 물가상승 압력 확대 가능성

-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경우 자가용 소유자들의 교통비 상승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05년 휘발유 가격 인상시 소비자물가가 한 달 만에 8.7% 올랐으며 연간으로는 더 큰 폭인 18% 상승함. 2008년에 천연가스, 디젤 등의 연료가격 인상 시에도 물가가 연간 12% 상승함.
 -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3.5~5.5%를 넘어선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2012년에 전기료 10% 인상까지 단행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

- 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개인용 휘발유 가격 차이 해소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이 기대되며, 정부 예산이 사회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경우 경제성장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³⁾인 BBB-로 높이는 등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현지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이 순 재】

3)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S&P 및 피치)의 국제신용등급이 BBB- 이상일 경우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며, BB 이하인 경우 투기등급에 해당함.